退溪와 南冥의 역사적 위상

李 樹 健*

•目 次•

Ⅰ 머리말
Ⅱ 退南 양 학파 형성의 정치·사회적 배경
Ⅲ '退南'의 生涯와 사상·학문 비교
Ⅳ 退南의 역사적 기능과 그 限界

Ⅰ. 머리말

退溪와 南冥이 아무리 위대한 학자와 사상가이고 그 언행 범절이 聖賢의 경지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역시 한 인간에 지나지 않으므로 결코 신격화하거나 성역화해서 불가침의 상태로 두고 연구하는 자세는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퇴계와 남명에 관한 연구는 그 미세한 분야까지 좁고 깊게 천착되어 이제는 더 구명해야 할 곳이 없을 정도로 손대지 않은 부분이 거의 없을 지경이다 1960년대이래 최근에 이르기까지 두 학자에 관한 論著가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두 학자의 사상이나 학문 및 시대적 소임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으로 그 역사적 기능과 한계를 지적한 것은 극히 적은 편이다 퇴계와 남명 연구에는 그에 관계되는 史料가 말해 주듯, 본고에 임하는 필자의 기본자세도 어디까지나 '사료로 하여금 진실(史實)을 말하게 해야 한다'는 역사학적 시각에서 퇴계와 남명의 역사적 위상을 기존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를 가지고 간략하게 그 일단을 피력해 보기로 한다

필자는 이제까지 퇴계와 남명의 사상과 학문에 대해서는 깊은 연구를 한 바 없으며, 다만 역사적·정치사회적 측면에서 관심을 갖고 지난 '79년에 '嶺南士林派', '82년에 '南冥과 南冥學派' 및 '95년에 '嶺南學派의 形成과 展開'라는 論著[1]를 발표한 바가 있을 뿐인데, 본고는 그것들에 대한 요약에 지나지 않는다

조선시대 학자 또는 학파에 대한 논평은 당대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정당하게 평가받지 못하고 주로 후대에 와서 정치세력의 소장과 학문·사상계의 변화에 따라 학연과 학통이 변질되기도 했던 것이며 또 학문적인 평가와 인물평도 그 추

* 영남대학교 국사학과 교수

1) 李樹健, 『嶺南士林派의 形成』(1979 영남대 출판부), 「南冥曺植과 南冥學派」(『民族文化論叢』 2·3합집, 1982) 『嶺南學派의 形成과 展開』(一潮閣, 1995)

종자들의 정권 득실에 따라 좌우되는 경우도 있었다 어느 주제를 막론하고 역사적 연구는 관련자료에 대한 정확한 고증과 비판이 전제되어야 한다 퇴계에 관한 자료는 비교적 후대에 온존된 데 반해 남명은 그 文集을 비롯하여 관련자료들이 仁祖反正이후 鄭仁弘의 처형으로 인해 상당히 변질되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正史인 『實錄』도 東西분당전에 편찬된 『明宗實錄』과 大北정권에 의해 편찬된 『宣祖實錄』 및 仁祖反正 후에 西人정권에 의해 改修된 『宣祖修正實錄』에 따라 退南 양인에 관한 서술태도가 다르며 또 退南 양인과 晦齋 및 '牛栗'과의 관계, 退南 사후 西厓와 來庵을 중심으로 한 南北人 분당, 인조반정과 戊申亂(1728)을 겪고 난 뒤 退溪와 남명에 대한 경상左·右道와 기호지방 등 지역·학파·당색에 따라 그 평가가 각각 상이했던 것이다 [2)]

한편 조선시대 선비는 현대의 지식인처럼 전공이 세분된 것이 아니고 누구나 修己·治人之學을 겸수해야 하기 때문에 참선비(眞儒)란 文과 武 또는 學(道學)과 吏才(행정실무)까지 통달해야 하였다 그러니 퇴계와 남명의 역사적 위상을 고찰함에 있어 단지 한 학자나 사상가로서 뿐만 아니라 兩班士類로서의 시대적·사회적 소임과 책무를 어느 정도 수행하였을까 하는 문제가 구명되어야 한다고 본다 같은 사림의 신분이라 하더라도 그 '出處'에 따라 책임과 평가가 달라지므로 퇴계와 남명을 같은 기준에 놓고 비교한다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

II. 退南 양 학파 형성의 정치·사회적 배경

조선왕조는 '사대부정권'이라 할만큼 독서유생인 士와 전·현직관료인 大夫가 재조와 재야에서 정치·사회적 지배세력으로서 역대의 정권을 담당해 나아갔다 이러한 사대부는 士族 또는 兩班과 동의어로 사용되었지만 그 형성시기는 고려후기로 소급된다 그들은 대개 지방의 군현 향리가문에서 출자하여 경제적으로는 지방의 중소지주적 기반을 가진 데다가 고려후기 정치적 혼란과 北虜·南倭의 외침이 거듭되는 가운데 과거·군공·添設職 등을 통해 중앙관인 또는 그에 준하는 자격을 획득한 자들로서 '能文能吏'의 조건을 갖춘 새로운 관인상을 지닌 동시에

2) 『明宗實錄』과 『宣祖實錄』 및 『宣祖修正實錄』 소재 퇴계·남명 관련기사를 가지고 비교해 보면 공정성과 편파성을 곧 발견하게 된다 동서분당 전에 편찬된 『명종실록』은 퇴계 남명에 관한 기술이 매우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서술된 데 반해 大北정권에 의해 편찬된 『선조실록』에서는 남명을 적극 추숭하고 퇴계를 貶下하려는 의도가 크게 작용하였다 즉 '退南' 양인의 卒年略傳에서 남명에게는 22行의 분량으로 비교적 詳述한 데 반해 퇴계에 관해서는 1行餘의 극히 짤막한 기사가 있을 뿐이다 그리고 퇴계의 「戊辰六條疏」와 「聖學十圖」가 기재되지 않은 대신 남명의 「辭丹城縣監疏」는 『명종실록』에 실린 것이 『선조실록』에도 중복 기재되어 있다 西人정권에 의해 편찬된 『선조수정실록』은 西人의 입장에서 南·北人의 학통인 '퇴남' 양인을 비교적 공정하게 다루려고 노력하였다

때마침 元나라로부터 전래된 신유학(朱子學)을 적극 수용하면서 고려말에 가서는 마침내 숭유배불과 반원친명책 및 왕조교체라는 방향으로 나서게 되었다

그들은 14세기말 왕조교체를 계기로 집권사대부와 재야사대부로 나누어졌는가 하면, 15세기 후반 세조의 왕위찬탈을 겪으면서 다시 훈구파와 士林派로 분기되어 갔다 특히 후자는 왕조교체기의 재야사대부와 맥락을 같이 하면서 훈구파의 집권 아래 주자학적 향촌지배질서와 새로운 先進농법을 향촌사회에 적용하여 원만한 '主奴'관계와 地主佃戶制를 근간으로 지역개발을 활발히 추진하는 과정에서 鄕村社會의 획기적인 성장과 함께 자신들의 정치·사회적 진출을 꾀하였다

국초 이래 적극적인 문교장려와 선비양성책은 16세기에 접어들자 지방에서 급격한 재지사족의 저변확대를 가져왔다 과전법의 해체로 인한 사족의 지주적 성격의 강화, 거듭되던 정변·사화로 인한 낙향관인의 증가, 土姓吏族의 사족화에 따른 '任內'이주 및 재지세력의 향촌지배권 장악에 따른 유향소·사마소의 설치운영, 鄕規·향약·동약의 제정실시, 서당·서원의 보급, 씨족·문중을 중심으로 한 同姓村의 발달 등 일련의 정치·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라 지방 사림의 형세는 16세기 중반부터 급격히 신장되어 갔던 것이다 [3)]

사대부에서 사림으로 연변하는 과정에서 그들은 중간에 비록 집권사대부와 재야사대부, 훈구파와 사림파 또는 나중에 동서·남북인·노소론의 당파로 나누어지기도 했지만, 그들은 교학과 신분상으로 본다면 모두 성리학에 훈도된 양반사류였다는 점에서 공통의 특징이 있다 따라서 조선왕조는 京鄕을 막론하고 사류가 중심이 된 양반지배가 확고한 사회인 동시에 士林이라 불리는 선비집단이 그 사회의 영도세력이었다 그 결과 士林이란 호칭은 당대 최고의 영예이며, 그들의 여론인 士論과 그들의 기상인 士氣는 곧 국가·국민의 元氣로 간주되어 위정자는 이를 적극 배양·권장해 주어야 한다고 인식했던 것이다 따라서 詩賦詞章에 능한 文士가 사림사회의 文酒席上에서 갈채를 받고 理氣心性之學과 禮學을 기본으로 한 道學이 학문세계를 풍미했던 兩班社會에 있어서 그러한 文才와 學識은 그만큼 出仕와 鄕村支配에 중요한 방편의 하나였다

한편, 조선초기는 전대의 遺制(비유교적인 예제와 의식)가 주자학적 예제와 의식으로 대체되어 가는 시기였다 그러한 양 체제의 교체과정에서 심각한 모순과 갈등을 초래하였는데 그 단적인 예로 태종조 처첩분간과 서얼차대법을 단행하면서부터 거의 집집마다 처첩과 그 소생들의 적서분간문제가 발생하였고, 承重·분재·봉사·관혼상제례에 걸쳐 古制와 時王之制 또는 時俗 그 어느 것에 준거하느냐에 따라 이른바 情誼·예제·시속문제가 심각하게 거론되었다 조선전기는 바로 이러한 두 가지 체제가 혼재한 데서 사대부정권이 지향하려는 법제적인 면과 실

3) 이수건, 「朝鮮朝 嶺南學派의 형성과 그 전개」(『韓國의 哲學』 21호, 1993)

제의 민간습속과는 상당히 괴리되어 있었다 사림세력의 저변확대와 주자학적 의례의 보급에 따라 전자의 것이 점차 후자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추세에 있었지만, 그 진행속도는 매우 완만하였다 [4]

재지사족의 신분유지에는 무엇보다 문·무 관직을 갖는 것이 첫째 요건이 되겠지만, 吏族의 사족화에는 과거·군공·학문·卓行 등이 중요한 수단이며, 그것은 또한 일정한 富와 학문적 기반 위에서 성취될 수 있었다 문과나 생진과에 합격하는 것이 사족자제로서 가장 소망스러운 길이지만, 그것이 여의치 않을 때는 조선 개국기·세조 정난기와 왜란·호란 및 영조 4년 이인좌란 때와 같은 집권층의 회유책과 군공으로 인한 정규 공신과 原從功臣 책록에 참여함으로써 신분을 고양시킬 수 있었다 그러한 정변과 전란이 기성 사족에게는 큰 타격을 주어 몰락하는 가문도 있었지만, 반면에 신흥세력에게는 집안을 일으키는 한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조선사회의 지배계급은 麗末의 신흥사대부 계층에서 발전한 양반이지만, 『世宗實錄地理志』 소재 姓種상으로는 州·府·郡·縣의 '土姓'에서 出自하였다 "우리나라 鉅族(15세기 당시의 名門大族)은 모두 郡縣의 토성에서 나왔다"는 成俔의 말이나 "각 고을의 京在所와 留鄕所의 임원은 모두 그 郡縣土姓에서 선임된다"는 李克培의 말처럼, 土姓은 고려초기 이래 역대에 걸쳐 중앙이나 지방의 支配勢力을 산출시키는 공급원의 역할을 하였다 토성을 제외한 다른 姓種은 歸化人을 除하면 모두 토성에서 분화된 것이며, 15세기를 기준하여 볼 때 이른바 鉅族과 士林派, 상급 향리인 戶長層을 막론하고 그들의 출신 뿌리는 각기 本貫郡縣의 토성에서 분화된 것이다 고려시대에는 같은 토성이라도 지방에서 上京從仕하면 귀족과 관료가 될 수 있었고 그대로 土着하면 군현 지배자로서 향리세계를 형성하여 지방행정 실무는 물론, 鄕邑社會까지 領導해 나가는 위치에 있었다

이러한 士族과 吏族의 분화는 고려말 조선초기에 오게 되면 더욱 촉진되어 在地土姓에서 다시 吏族(향리)과 在地士族으로 구분되고, 그것은 다시 兩班과 中人이란 계층분화로까지 발전시켜 나갔다 이는 또한 15세기 兩班官僚體制의 확립과정에서 기성 사족인 양반은 벼슬인 '官'(관리직)을, 吏族은 중앙과 지방의 행정실무인 '吏事'를 담당한다는 데서 所管 직무까지 확연히 구분됨과 동시에 吏族은 邑內(城內)에, 士族은 城外 鄕村에 거주하는 등 거주지까지 구분하게 되었다 [5]

한편 양반관료의 지배체제 아래 있던 胥吏와 鄕吏 등 中·外 官衙의 행정실무자와 각종 기술관 및 양반의 庶孼 등 이른바 中人層은 法制上의 대우와 실제 행정상의 기능과 위치는 상당한 거리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中·外 官衙의

4) 이수건, 「朝鮮前期의 社會變動과 相續制度」(『歷史學報』 129, 1991)

5) 이수건, 「兩班社會의 形成과 展開」(『韓國學入門』, 대한민국학술원, 1983) , 「高麗·朝鮮時代 支配勢力 변천의 諸時期」(『韓國史時代區分論』, 한림과학원총서 26, 1995) , 『韓國中世社會史硏究』(一潮閣, 1984)

행정실무를 관장했던 서리층은 비록 역사의 표면에는 크게 드러나지 않았지만, 官衙와 官員 사이를 연결하면서 실제 권력구조면에서나 권력의 행사면에 있어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더구나 빈번한 政變과 士禍, 거기에 수반된 양반관료의 잦은 교체에도 행정상의 공백과 혼란이 야기되지 않고 왕조의 기본 운영체제가 유지된 것은 吏屬이 관아의 실무를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胥吏는 "양반관료의 乳母"라는 俗語가 유행하였다 특히 '仜流(守令) 하더라도 石不轉(鄕吏)'이라 표현하듯이 郡縣 향리층은 고려초기 이래 地方行政 실무를 세습하면서 격변기마다 그 시대적 전환기를 잘 포착하여 다음 시대의 새로운 세력으로 성장해 나간 것은 엄연한 역사적 사실이었다

조선왕조의 地方統治體制는 중앙의 관료체제와 마찬가지로 양반관료의 권익을 일차적으로 옹호하기 위한 장치에 불과했으며, 지방행정이란 것도 결국 양반의 지배체제를 부지하기 위한 행정적 보조기관에 지나지 않았다 그런데 지방통치의 방식은 왕권의 강약과 勳舊·士林派란 집권세력의 성향에 따라 상이하였다 15세기는 지방제도의 개혁이란 면에서 볼 때 획기적인 시기였다 즉 고려의 五道·兩界가 八道體制로 확정되고, 신분적이며 다원적이던 郡縣制가 일원적으로 행정구획화되며, 事審官制가 京在所와 留鄕所로 분화 발전해 나가고, 종래의 屬縣과 鄕·所·部曲이 소멸, 直村化하면서 새로운 面里制로 점차 개편해 나갔던 것이다 경재소와 유향소는 무엇보다도 조선왕조를 창건하는 데 주역을 담당했던 신흥사대부 세력이, 그들이 소유한 外地의 토지와 奴婢를 효과적으로 지배 관리하고, 이제까지 군현지배권을 갖고 있던 향리를 배제하고 그들 주도의 지방통치와 성리학적 향촌질서를 확립하려는 과정에서 설치되었던 것이다 경재소는 1邑 1所의 원칙대로 主邑을 단위로 조직된 것 같으며, 각 邑의 京邸와 병존하면서 해당 읍의 유향소를 거느리고 있었다 유향소는 그 설립 초기에는 군현지배권을 향리로부터 인수받기 위해서 경재소의 힘을 빌렸던 것이며, 在京官人들은 경재소와 유향소를 배경으로 각자 緣故地의 지방행정은 물론 자기들의 사회적·경제적 기반도 부식해 갔던 것이다

조선왕조의 중앙집권적 지방통치체제가 비교적 잘 유지될 수 있었던 배경은 왕→감사→守令으로 이어지는 官治行政的 계통과 경재소→유향소→面·里任으로 연결되는 在地士族 중심의 自治的인 행정체계 및 이들 중간에 介在한 上計吏·京邸吏·營吏·邑吏의 향리계통, 이 3자가 서로 견제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는 마치 李重煥이 그 『擇里志』에서 언명한 것처럼, 조선왕조의 권력구조에 있어서 政曹(의정부와 六曹 정무기관)·三司(언론·감찰)·銓郞(인사권)이 서로 견제와 균형의 妙味를 살린 데서 300년 동안 大權奸의 위협 없이 王業이 유지되었듯이, 地方統治에 있어서도 위의 3계열이 서로 얽히고 설킨 데서 지방에 큰 반란·반역사건 없이 중앙집권적 兩班支配體制가 오랫동안 비교적 잘 지속되

어 갔다고 볼 수 있다 [6]

조선시대 향촌에 盤居한 양반들은 특정의 명조를 받들고 문중과 동성촌을 이루고 향청과 향교 또는 서원을 출입하면서 향회·도회·儒疏와 같은 모임과 집단행동에도 적극 참여하였다 그들은 각기 학통과 당파별로 존재하면서 한때 대단한 지위에 올랐거나 학문과 덕행으로 유명했던 선조를 받들며 종가를 중심으로 한 족적 결속을 굳게 하고자 문중조직·문중재산·족보 같은 것을 매우 소중하게 여겼다 특히 조선후기 삼남지방의 시골 양반들은 움직였다 하면 서원이나 사묘를 세우고 문집을 편간하였다 그것은 과거나 벼슬이 종전처럼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그런 사업이라도 추진함으로써 우선 사대부의 명망을 잃지 않고 문중과 씨족을 보존하여 민중에 군림하고 鄕里를 호령할 수 있었던 것이다 [7]

양반과 동의어로 사용된 사족이란 항상 土와 族의 문제가 동시에 고려되었고 어느 한쪽만을 취하지 않았다 가령 입학·과거·銓注·任官문제와 관련하여 과거와 署經과정에서 당사자의 글재주·학식·덕행과 함께 혈통과 가계 및 族屬을 중히 따지는 취지는 바로 그 두 가지 요건을 필수조건으로 하였기 때문이다 조선왕조가 엄격한 신분제를 바탕에 깔고 성리학적 유교소양과 文·武·吏의 3대 출사로와 관련하여 과거·천거·取才 등을 채택했다는 데서 사와 족의 두 가지 요건인 혈통·가계·祖蔭을 따지는 성과 본관, 가문, 혼인관계를 중시한 결과, 아무리 명문·거족이라 하더라도 개인적인 자질과 능력을 갖추지 않은 한 사족 곧 양반신분을 계속 유지할 수는 없었다 특히 한국은 그 기간동안 異民族에 의한 정복왕조나 전형적인 혁명에 의한 지배세력의 전면적인 교체는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회적 지속성이 매우 강인하게 존속하였고 또 지배세력의 변화와 교체도 계기적·단계적으로 진행되었다

그러한 양반사회가 강한 지속성을 갖게 된 연유로서는 첫째, 世臣·世族으로서의 양반사대부와 향역을 세습하는 世吏로서의 향리, 世傳其業하는 잡과출신의 중인층, 둘째, 사족의 손발과 재산으로서의 世傳奴婢와 공신들에 지급한 공신전·공신노비를 비롯한 賜牌田民과 조상의 유산 등 신분과 직역 및 재산상속의 세습성과 폐쇄성이 특히 강인했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는 계급내혼·지역내혼제와 子女均分상속제가 철저하였으므로 사회신분의 지속성과 연속성이 잘 유지될 수 있었다 조선사회의 '양반'제도와 노비세전법을 비롯하여 『세종실록지리지』 성씨조의 성관 체제, 경재소와 유향소의 병존, 邑司향리의 철저한 향역세습, 任內와 直村·越境地의 병렬, 八高祖圖와 男歸女家婚·남녀균분상속제 등은 중국과는 판이한 제도와 관습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특징 외에도 양반의 신분유지에는 漢唐유학이든, 宋明유학이든 유교(학)적인 소양과 文才·학식과 관직, 명조·현조의 가계 및 일

6) 이수건 『朝鮮時代地方行政史』(대우학술총서 37, 民音社, 1989)
7) 이수건, 「17 18世紀 安東地方儒林의 政治 社會的 機能」(『大丘史學』 30, 1986)

정한 경제적 기반(토지와 노비)이 있어야 했다

또한 조선사회는 중앙과 지방 또는 각 신분·계층별로 권력의 안배와 財富의 분배가 어느 정도 균형을 유지하고 있었다 중·외 관청마다 官과 吏란 양반과 중인, 고을마다 향청과 吏廳, 향교와 서원, 씨족과 문중을 단위로 한 재지사족이 서로 균형과 견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데서 전통적인 지배세력인 양반 외에 제3세력의 정권참여는 거의 불가능했으며, 그 때문에 中世的인 왕조의 장기화를 가져오고 말았던 것이다 [8]

麗末鮮初에 걸친 사회변동 가운데 특기할 만한 것으로 "任內(속현 및 향소부곡)의 直村化에 따라 在地士族들의 활발한 地域開發로 인한 향촌사회의 성장"이란 문제를 들 수 있다 麗末까지만 해도 각 고을(군현)의 '邑治(內)'지역이 그 區劃의 행정·경제·문화의 중심지인 동시에 그 鄕邑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던 土着吏民들의 사회·경제적 기반이었으므로 그 곳이 주로 개발되어 있었고, 任內나 읍치의 외곽지대는 인구가 희소하고 주민이 우매하여 미개발된 상태로 남아 있었다 당시 전국 各邑의 管內를 크게 鄕邑地域과 鄕村지역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를 후기의 『邑誌』에 의거 戶口와 田結數를 對比시켜 보면, 읍치는 향촌지역에 비해 최대 1/5 내지 최소 1/10에 불과하였다 향촌의 4/5 또는 9/10에 해당되는 지역이 朝鮮初期에 들어와서 이른바 新興士族·留鄕品官 및 落鄕官人들에 의하여 개발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그들은 朱子學的 鄕村支配질서와 새 先進農法을 갖고 일정한 奴婢와 토지를 소유한 채 移住하거나 '卜居'하여 새 터전과 農莊을 개설, 경영함에 따라 그 곳이 나중에 각 지역을 대표한 在地士族의 集居地가 되는 동시에 그 주위의 오지·僻地가 잇따라 개발되어 갔다 각 邑治의 외곽지대와 任內는 지세나 위치상 農地와 山地 및 河川과 溪谷이 서로 交錯하여 堤堰과 川防(洑) 등 灌漑시설 축조에 편리하였다 특히 이러한 곳은 우선 당시의 諸先進農法을 적용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구비한 데다가 河川이나 溪谷의 물을 이용하여 관개할 수 있어 水稻作 재배에 旱害가 적고 또 河床이 낮기 때문에 洪水로 인한 水害가 下流지역보다 적었다 또한 이러한 곳은 '避兵'·'避世'하는데 유리한 자연조건을 갖추었을 뿐아니라 幽閑한 情景을 선호하는 士林의 취향에도 적합했던 것이다 외관상 이러한 곳은 교통이 불편하고 관청과의 거리가 멀다는 데서 취락의 適地가 아니라고 생각되기 쉽지만, 中世社會하에 있던 재지사족들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그러한 면이 장점이 되기도 하였다 안팎으로 奴婢가 있어 家內外使喚을 담당하였고 또, 필요로 하는 물자를 공급받을 수 있었으며, 관청과 격리해 있는 것도 그들에게는 오히려 번잡한 市井의 분위기와 官權의 감시 및 官吏들의 侵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기 때문이다

8) 앞에 든 이수건 「高麗·朝鮮時代 支配勢力 변천의 諸時期」 참조

世宗朝의 地理志에 각읍마다 戶口·田結數가 기재되고 『經國大典』에 面里制가 비로소 法制化하며, 16세기 후반부터 새로 편찬되기 시작한 『邑誌』에는 종전의 地志에서 볼 수 없던 '坊里'條項이 가장 상세하게 기술되고 있다는 사실은, 바로 15세기이래 재지사족들에 의해 꾸준히 개발되고 있던 향촌사회의 성장을 반영한 것이라 하겠다. 15세기 후반이래 在地士族 子弟의 활발한 진출과 鄕約을 비롯한 鄕村諸規約과 座目 등의 제정, 실시는 바로 조선초기 이래 재지세력들에 의한 지역개발과, 그 결과로 얻어진 사회·경제적 기반에 힘입은 바 컸던 것이다

16세기이래 경상도의 각읍을 대표하여 강력한 재지적 기반을 바탕으로 활발한 정치·사회적 집단행동을 수행했던 退南 양 학파의 가문들은 대개 이러한 곳에 同姓村을 형성하고 있었다 [9]

麗末鮮初부터 郡縣에 따라 그 鄕邑을 영도할 수 있는 門閥과 學德을 갖춘 士族의 父老·子弟에 의한 조직이 있어 왔다 그 조직은 고려이래 '邑司'를 구성했던 鄕吏의 '壇案'이나 후일의 '靑衿錄'과 같이 조직 참가자의 명부, 즉 鄕案(지방에 따라 鄕座目·鄕錄·鄕籍·靑襟錄 등으로 호칭)을 갖추고 있었던 것이며, 의결기관이면서 鄕射·鄕飮酒禮·鄕約讀會·養老禮 등의 거행과 기타 친목의 장소이기도 한 鄕會 또는 사무소이면서 공동의 집합장이기도 했던 鄕廳(鄕射堂·留鄕所·鄕所)을 갖고 있었다

鄕案에는 이른바 世族이어야 入錄될 수 있었다 世族이란 吏族이나 常民이 아닌, 즉 벼슬할 수 있는 士族과 같은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해당 군현에 거주하는 문벌과 학덕을 갖춘 '兩班'이란 의미를 지닌다 郡縣土姓에서 上京從仕하였다가 낙향한 가문, 土姓에서 재지사족으로 성장한 가문 및 他邑·他道출신 사족으로 移住하여 학문·덕행·벼슬을 갖춘 가문이 향안에 들 수 있었다 應試나 出仕上의 署經에서 결격사유가 없는 그런 가문이 1차 대상이 되었으며, 父系를 위시하여 外系와 妻系에 하자가 없는 가문이어야 했다

조선시대 鄕村社會에 관한 諸規約은 鄕規·鄕約·洞契·洞約·稧約 등 크게 향규·향약·동약 및 각종 契로 나눌 수 있으며 그러한 조직체의 구성원 명단은 또한 鄕案·洞案 및 稧案 등으로 나눌 수 있다 兩班社會의 정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양반사대부가 지향하려 했던 유교적인 향촌질서가 먼저 확립되어야 했다 그런데 향촌사회는 일찍이 在地士族들에 의한 자율적 조직체가 존재했음이 밝혀졌는데 '鄕案'은 그 구성원의 명부이며, 鄕規는 그 규약이라는 것이다 [10] 鄕約의 보급에 앞서서 유향소와 향안을 규제했던 향규는 벌써 조선초기부터 있었다 유교적인

9) 이수건, 「古文書를 통해 본 朝鮮朝 社會史의 一硏究」(『韓國史學』 9집,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7)

10) 田川孝三, 「鄕案について」(『山本博士還曆記念東洋史論叢』, 1973), 「鄕憲と憲目」(『鈴木俊古稀記念東洋史論叢』, 1975), 「李朝の鄕規について」(『朝鮮學報』 76·78·81, 1975~76)

향촌질서의 확립과정은 성리학적 교육과 윤리·의례의 수용 및 士林派 세력의 성장과 유기적인 관련하에서 진행되었다 그것은 바로 성리학적 실천윤리를 강조하던 사림파 세력의 성장에 따라 朱子『家禮』의 수용과 『小學』교육의 보급, 社倉의 설치 및 유향소의 설치와 향규·향약의 시행에서 가능했던 것이다 이러한 것에 대한 양반사대부들의 본래 취지는 유교적인 德治, 爲民政治의 실현수단으로 제시되었겠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양반 대 농민의 원만한 관계 유지에 있었던 것이며, 향촌의 지배권을 장악한 在地士族들이 민중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배 내지 수탈하기 위한 필요에서 추진되었다고 볼 수도 있다

유향소의 조직과 임원 선정, 鄕任의 직무와 권한, 향촌교화 및 향안의 入錄 범위와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 鄕規이다 즉 향규는 유향소의 임원 또는 구성원에 의하여 '立議' 또는 '完議' 형식으로 의정된 것이며, 유향소의 발전과 함께 규약의 내용도 점차 정비되어 갔던 것이다 "列書洞案, 以復舊規焉", "旣修洞案, 更定洞規"라든지 혹은 "洞案旣成, 則不可無洞約"[11]이라 한 바와 같이 洞案이 갖추어진 뒤에 洞規 또는 洞約이 마련되듯이, 留鄕所가 설립 운영되고 鄕案이 작성됨에 따라 유향소와 향안을 규제할 鄕規가 나오기 마련이었다

退溪→安東鄕中士林→柳成龍의 손을 거치면서 전래의 향규는 16세기말부터 향약적 성격을 가미하다가 17세기 退·栗兩門徒들에 의해서 오히려 鄕約을 주로 하면서 그 안에 종래의 향규를 끌어넣는 데서 향규의 향약화가 급진전되어 갔다 宣祖 35년(1602)에 작성된 金圻의 향약에서 17세기 이후 일반적 추세였던 朱子의 增損鄕約을 기초로 하여 退溪의 罰則條와 재래 洞契의 吉凶慶弔, 患難相救·春秋講信 등이 결합된 향약을 발견하게 된다 여기에는 '下人約條'를 비롯한 향촌생활에 있어서 士族의 구체적인 자기통제 규약이 포함되어 있다[12]

鄕約은 본래 宋代의 藍田呂氏가 창안한 향촌자치에 필요한 德目과 상호협조 등을 규약한 것으로 뒤에 朱子의 증보에 의해 더욱 완비되어 『朱子大全』(『小學』과 『性理大全』에도 실림)에 실려 있었으므로, 향약이 우리 나라에 소개된 것은 주자학의 전래와 거의 같은 시기였다 또한 呂氏鄕約은 朱子가 편집한 『小學』에 실려 있었기 때문에 『소학』교육의 보급과 함께 15세기부터 사대부계층에 수용되어 갔다 이러한 향약은 성리학적 실천윤리를 향촌사회에 보급시키려 했던 士林에 의하여 영남지방부터 점차 전국으로 확산되어 갔다 그런데 이에 앞서 유향소의 설치 운영과 함께 상술한 鄕規가 지방에 따라 제정 실시되었고 향약은 16세기부터 실시되기 시작하였는데 그것은 趙光祖 일파의 집권과 거의 동시에 이루어졌다 퇴계와 栗谷에 이르러 한국적인 향약이 확립된 후 두 학자의 것을 모범으로 한 영

11) 『晋陽誌』 卷1, 各里 東西上寺里洞約跋(宣祖 36년, 金大鳴撰), 同書 鄭承勳 洞約序, 同書 琴山洞, 成汝信의 洞約序

12) 「退溪集』 卷42, 鄕立約條序 附約條 「永嘉誌』 소재 安東鄕規舊條 및 新定十條 참조

남·기호학파는 양대 향약의 맥을 형성하게 되었다

鄕約이 위로부터 또는 士族 중심의 규범적인 향촌자치규약이라고 한다면, 밑으로부터 지연적 또는 혈연적인 특수 이익을 토대로 한 자연발생적인 것으로는 契가 있었다 이는 宣祖朝 朴淳의 말과 같이 "우리 나라 民俗에 都下로부터 外方의 鄕曲에 이르기까지 모두 洞隣之契와 香徒之會가 있어 사사로이 鄕約을 세워 서로 檢束"했던 것이나, 世宗朝 朴訇의 陳言과 같이 "마을마다 사람마다 모두 鄕徒를 맺어" 會飮·埋葬 등 촌락주민의 공동체적 행위를 수행했던 것이다[13] 조선시대의 契는 크게 士族중심의 것과 香徒와 같이 농민중심의 것이 있었는데, 후자는 '寶'와 같은 '存本取息'에 중점을 두는 것으로 대개 촌락단위의 소규모적인 것이 많았고 때로는 洞契·統契·喪布契·軍布契·禁松契 등 水火災難과 養生送死에 관한 상부상조적인 것이 주종을 이루고 있었다

鄕校와 書院을 주도했던 士林의 社會的 기능은 결국 그들의 在地的 기반을 다지고 鄕村支配體制를 확고히 함과 동시에 그들의 정치적 활동도 뒷받침하기 위한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그들은 무엇보다 먼저 재지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경제적 기반을 확대하고 그들의 지배하에 있는 下層民을 무마·단속하기 위하여 鄕規·鄕約·洞契·族契 등을 제정 실시하였다

특히 영남의 各邑士族들은 15세기이래 각기 鄕校와 留鄕所 및 후대의 書院을 장악하여 그들 중심의 鄕村社會를 영도해 나갔던 것이다 이처럼 영남지방은 고려후기부터 名賢·碩學들이 배출하여 유교적인 文獻고장으로서 또한 면면히 전승해 온 敎學의 전통을 갖게 되었다 이때부터 이 지방의 鄕校는 각읍마다 在地士族들의 子弟를 교육시키는 장소로서 많은 인재를 양성, 배출시켜 조선초기 이래 향교의 시설과 교육체제가 잘 갖추어져 있었다 그래서 이 곳은 재지사족과 吏族이 官權의 간섭을 배제하고 공동협찬하에서 지방행정과 향촌지배 기반을 장악해 갔다 이 곳의 士族과 吏族은 각기 鄕案과 壇案(吏案) 및 鄕規와 鄕吏規約 또는 洞約·族契를 작성 제정함에 있어 서로 공동 참여했던 것이며, 이러한 기반 위에서 뒷날 退溪門徒들에 의해 書堂·書院이 발흥하게 되었다

조선후기 各邑의 향교와 서원이 상호 경쟁적인 대립관계에 있을 때도 유독 영남지방만은 양자가 儒林의 정치·사회적 활동의 중심지로서 공동보조를 취해 갔던 것이다 그리하여 영남의 각읍 향교는 일찍부터 재지사족의 장악하에 들어갔고 따라서 그 校生들은 士族의 子弟였다 이처럼 영남지방 향교의 校生들은 士族子弟가 주류를 이루었고 따라서 각읍 향교는 儒林의 장악하에서 書院세력과 함께 항상 공동보조를 취하여 유교적인 각종 행사와 儒疏·鄕戰과 기타 유림행사를 주관하는 장소로 기능하였다 조선시대 영남지방은 유교문화 내지 성리학이 가장 발달

13) 『眉巖日記草』 4(8冊) 癸酉 8月 17日條, 『宣祖實錄』 卷7, 宣祖 6年 8月 甲子條, 『世宗實錄』 卷22, 世宗 5年 12月 丁卯條

했을 뿐만 아니라 16세기 후반부터는 畿湖學派에 대칭되는 嶺南學派의 본산으로서 道內의 儒林을 영도하여 西人 내지 老論政權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各邑의 校院세력이 南人의 입장을 고수하면서 활발한 정치·사회적 활동을 전개하였다

退溪·南冥學派는 각기 경상 좌·우도지방의 대표적인 재지사족이 중심이 되어 형성되었고, 그들은 서로 중첩적인 혼인관계로 인해 家産도 상호 授受하게 되었고 학문도 父祖 또는 外祖·妻父의 학통을 이어 나갔다 한편 그들은 退南 당시부터 각기 거주지 소재 서원을 중심으로 그들의 재지적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해갔다 順興·豊基지방이 紹修書院을, 영주지방이 伊山書院을, 易東書院이 예안현을, 濫溪書院이 咸陽郡을, 道東서원이 玄風縣을, 川谷書院이 星州牧을 중심으로 각기 재지사림의 지위를 굳혀갔다 퇴계와 남명 사후에는 도산·여산·덕천·용암·신산서원 등이 우뚝 솟았는데 이어 안동지방에 柳成龍과 金誠一門徒를 중심으로 屛山과 虎溪書院이 확립됨으로써 퇴계학파가 더욱 확장되었다

儒疏는 유생들의 집단 上疏라는 데서 유학의 기본인 崇儒·闢異·名分과 義理, 表忠旌孝와 典禮문제 및 그들의 관심사인 院祠와 鄕戰에 관한 것이 주류를 차지하며, 관념적이고 번쇄한 이론과 고루한 명분론에 집착하는 유소가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유소의 주체인 유생은 사회신분상으로는 상급지배신분인 양반층의 자제로서 幼學(學生)과 小科에 급제한 生員·進士로 구성되며, 그들은 각기의 소속에 따라 館儒(成均館)·學儒(四部學堂)·校儒(鄕校)·院儒(書院) 및 기타 幼學으로 구분되지만, 校儒 또는 校生의 신분은 지역에 따라 士族과 非士族子弟로 나눌 수 있으며, 경상도의 교생은 도내열읍에 따라 한결 같지는 않지만, 대체로 사족자제로 구성되어 있었다 [14]

鄕村社會에 있어서 在地勢力間의 각종 鄕權쟁탈전인 鄕戰은 조선후기 정치사회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라 생각된다 16세기 이전에도 향전이 있었다고 생각되지만 그것이 심각한 문제로 등장한 시기는 대체로 16세기 후반부터 였다 후기의 향전은 그 유형상 ① 鄕案入錄과 鄕廳任員의 선임문제를 둘러싸고 야기되는 경우, ② 당파의 분열에 따른 南·西人간의 대립과 갈등, ③ 書院·祠廟의 配享·追享 및 位牌의 序次문제 등을 둘러싸고 씨족·학파·문중간에 야기되는 경우, ④ 鄕權과 官權과의 충돌에서 야기되는 경우, ⑤ 先祖의 學統과 師友淵源 문제, 文集간행과 文字是非 등을 두고 後學·後孫間에 분쟁이 야기되는 경우, ⑥ 田畓·墓山의 소유와 사용문제, 堤堰과 洑(川防)의 축조·수리·사용권을 둘러싸고 씨족·촌락간에 야기되는 분쟁, ⑦ 이상의 제문제와 무관하지 않지만 사회신분과 계층간의 대립과 갈등, 嫡庶와 士族·吏族間의 대립분쟁에서 야기되는 鄕戰 등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다

14) 이수건 「朝鮮後期 嶺南儒疏에 대하여」(李丙燾博士九旬紀念『韓國史學論叢』 1987)

그런데 鄕戰이나 儒疏의 준비에 있어서 불가결한 수단이 있는데 그것이 通文이다 通文은 檄文·布告文과 같이 조선조 유림사회에 중요한 통신수단으로 成均館·四學·鄕校·書院·鄕廳·門中間에 왕래한 것으로 여러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한 通知文이다 이러한 통문과 같이 서면으로 알리는 통신 수단은 일찍부터 있어 왔다고 볼 수 있으나 그것이 유림사회에 크게 문제가 되기 시작한 시기는 士林이 정계와 학계를 주도했던 16세기후반부터라고 생각된다 통문은 보통 10여 명에서 수십 명 또는 후기에 오면 100여 명, 때로는 1,000여 명이 연명한 것도 있으며 그 내용상 단순히 사실을 통지하는 것, 鄕會·疏會와 같은 회의·집회를 개최키 위하여 혹은 어떤 행위에 동참을 호소하며 혹은 宗中·門中에 족보편찬·爲先事業과 같은 사업을 알리는 등 그 종류는 실로 다양하였다 이와 같이 통문은 한 지역이나 전국의 유림사회에 연락을 취하고 士論을 고취시키는 데 큰 위력을 발휘했으며 유소와 함께 집권층에게 때로는 큰 위협을 느끼게 하기도 하였다 통문의 형식이나 연명인수 또는 文體의 美惡을 갖고 그것을 주고 받는 유림끼리 서로 자기들의 凡節과 文章·學識을 과시하기도 하였다 그러한 의도가 때로는 크게 작용하여 통문을 발송하는 행위보다 통문의 문체에 대해 더 신경을 쓴다든지 하여 간혹 문자상의 遊戱가 담긴 통문도 없지 않았다 [15]

Ⅲ. '退南'의 生涯와 사상·학문 비교

조선왕조의 통치이념으로 자리를 굳힌 性理學은 집권·재야사대부 또는 官學과 私學의 공동노력에 의하여 정착, 보급되어 갔으며, 16세기 후반에 접어들자 사림세력의 정계장악과 함께 政派의 분열과 동시에 인맥·지연 및 학설상으로 점차 流派가 생기면서 동서분당과 함께 嶺南學派와 畿湖學派로 대별되어 갔다 15세기 후반 金宗直을 영수로 한 경상도의 신진사류를 '영남사림파'라 한다면, 16세기 중반 晦齋·退溪·南冥의 학통을 포괄해서 이를 '영남학파'라 할 수 있다 전자에서는 성리학의 수용과정에서 朱子의 『經傳集註』와 『家禮』 및 『小學』 교육을 성리학의 실천윤리와 敎育 및 行身의 기본으로 삼았다는 데 반하여, 후자에서는 理氣心性學과 禮學을 바탕으로 한 道學을 주로 하면서 栗谷·牛溪를 영수로 한 기호학파에 대칭되는 학파로서 학연상으로는 退溪와 南冥學統을, 당파상으로는 東人 내지 南人 또는 北人의 입장을 고수했던 것이다

퇴계 이황(1501 11~1570 12)과 남명 조식(1501 6~1572 2)은 同甲·同道人으로서 乙巳士禍(1545) 이후에 굴기하여 東西分黨(1575) 이전에 일생을

15) 이수건 「17 18世紀 安東地方 儒林의 政治社會的 機能」(『大丘史學』 30, 1986)

마치면서 각기 慶尙左道(또는 上道)와 右道(또는 下道)를 대표하여 영남학파의 2대 산맥인 퇴계학파와 남명학파를 형성시켰다 仁祖反正(1623) 이후에는 退南 양 학자의 위상과 양학파의 형세에 큰 격차가 있게 되었지만, 두 학자의 생존시에는 그 형세가 대등하여 양쪽을 넘나드는 학도와 관인들이 많았다

퇴계의 문인 趙穆은 그가 찬한 『退溪言行總錄』에서 "선생의 천품은 영오하고 神彩가 정명하였다 기질은 온화하면서도 굳세고, 言辭는 완곡하면서도 직선적이었다 학식은 해박하면서도 요령이 있었고 행동은 온전하면서 독실하였다 청정하되 과격하지 않았고 참여하되 굳이 바로잡으려 하지는 않았다 옛것을 흠모하되 그것에 옹체되지 아니하였고, 세상에 처해 살되 세속에 흐르지 아니하였다"라하여 퇴계의 사람됨을 간결하고 요령 있게 평설하였다 한편 『明宗·宣祖實錄』에 표현되어 있는 그의 성품은 '英明·疎淡, 淸簡, 溫粹, 謙虛, 恬靜'한 것이었다 그의 성품이나 처세태도는 인격의 도야나 학문의 연구를 통하여 훌륭한 인격자 내지 위대한 학자로서 성장하였으나 굳센 신념과 정열을 가지고 현실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어 그 현실을 과감히 개혁해 나갈 만한 탁월한 능력의 관인으로는 성장하지 못하였다 [16]

퇴계의 官歷은 小科와 文科를 거친 다음 權知承文院副正字에서 著作—博士—典籍—六曹佐郎—三司郎官—諸司正—外職守令—大司成—軍職上護軍—僉知中樞—參判—判書—右贊成—判中樞 등 당시 兩班官人이 文科를 거쳐 요직·고관에 이르는 경로를 순차적으로 밟아 마침내 정1품인 判中樞에 올랐고 죽은 뒤 곧 영의정과 文純이란 시호가 추증되고 다시 宗廟배향과 文廟從祀라는 신하로서, 학자로서 최고의 영예를 향유하게 되었다

퇴계의 학문세계는 그가 평소 탐독하고 참고했던 수택본의 종류와 내용을 갖고 짐작할 수 있다 明宗 15년 도산서당이 준공된 뒤 그는 동향 출신 제자인 琴蘭秀에게 자신이 도산서당과 溪上住宅에 소장하고 있던 兩處 도서 정리를 맡겼는데, 당시 퇴계의 소장 도서목록은 금난수의 『手筆日錄』에 상세히 기재되어 있다 소장 도서는 총 1,700여 권인데 종류로는 중국의 經史子集이 159종, 한국의 역사, 지리, 法制, 文集, 기타 雜錄이 55종으로서 전자에 비하면 후자는 1/3에 불과하였다 그의 평소 수택본의 목록을 갖고 짐작되는 것은 그의 학적 관심사가 주자학 일변도였다는 사실과 중국에서는 程朱學과 並存했던 陸王學 관계도서가 그의 장서에는 거의 없었으니 그의 편협한 闢異사상의 일면을 엿볼 수 있으며 자국의 역사와 선배학자에 관한 도서는 적은 편이 아닌데도 한국의 역사와 문화 및 時事·時務的인 것에는 관심도 적고 구체적인 논술도 없었다 [17]

南冥은 燕山君 7년 6월 경상우도 三嘉縣(현 陜川郡內) 兎洞에서 출생하였다 7

16) 李秉烋, 「退溪李滉의 家系와 生涯」(『退溪學硏究』 1집, 경상북도, 1973)
17) 琴蘭秀 『惺齋日記』(친필초고 안동 孤浦소재)

세가 되면서 가정에서 父로부터 수학한 이래 父의 宦路를 따라 혹은 義興과 端川에서 혹은 서울에서 수학하였다 그는 처음부터 傲世·傲物하는 고답적인 기질을 지녀 부귀와 재화를 草芥와 같이 보면서 항상 遺世的인 기상을 가졌던 것이며, 약관 때부터 科業과 科文에 몰두했으나 30세가 넘도록 小大科의 豫試에만 入格했을 뿐 本試에는 끝내 합격하지 못하였다 처음에는 '左柳文'과 같은 古文과 科業敎育에 종사하다가 『性理大全』, 『心經』 등 성리학에 접하게 되자 25세부터 心性學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남명의 학문자세는 '敬義'를 전제한 反躬實踐에 궁극적 목표를 두었고 日用動作에서 시작하여 『사서』·『근사록』·『성리대전』 및 『심경』을 기본교재로 사용하였다 그는 교육의 실제에 있어서도 性命·天理와 같은 '上學'보다는 日常動作과 같은 '下學'적인 면에 치중하였다 그는 사람의 품성과 소질에 따라 교육하되 스스로 體得하여 실천하도록 유도하였다 그는 당시 사림들이 현실을 떠나 지나친 관념론과 高遠한 차원에서 高談峻論하여 도명·기세하는 언동을 가장 싫어하였다 그래서 평소 자신도 그러한 혐의를 받지는 않을까 항상 경계해 마지않았다 그는 당대 제일의 '遺逸'로 조야의 촉망과 사류의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었지만, 그러한 여망을 감당할 학식과 위치에 있지 않다고 늘 겸허한 자세로 임했고, 師友·門人과의 서신 왕래에서도 자신의 虛名이 혹시 도명·기세하는 행위를 저지르지 않나 해서 자책·自愧하는 심정을 술회하였다 [18]

저 유명한 「慈殿塞淵, 不過深宮之一寡婦, 殿下幼冲, 只是先王之一孤嗣」라는 남명의 제1차 上疏에 대해 당시 史官은 아래와 같이 논평하였다 [19]

> 당시 遺逸에 假托하여 실제 學德을 갖추지 않고 한갓 虛名으로 盜名·欺世하는 자가 많다 그러나 植은 持身修潔하여 초야에 묻혀 세상에 드러내려고 하지 않으나 그 명망이 자연 조정에 전달되어 관직이 누차 제수 되었으나 安貧自樂하여 끝내 出仕하지 않으니 그 뜻 가상하다 그러나 植은 결코 세상을 잊는데 과감하지 않았다 陳疏 抗議하여 時弊를 極論함에 辭懇義直했던 것이며, 傷時憂亂하여 나의 임금을 明新의 경지에 넣고 風化를 王道의 극치에 두려고 했으니 그 憂國之誠이 지극하다 아! 평소 뜻한 바를 임금 앞에 다 開陳하고 끝내 처사로서 일생을 마쳤으니 그 마음은 충성하고 그 절의는 높다 하겠다

남명학파의 지역적 범위는 대체로 진주를 중심하여 동쪽으로는 김해·밀양·청도, 북쪽으로는 창녕·현풍·성주, 서쪽으로는 山淸·咸陽·하동 및 남쪽으로는 泗川·고성 등지에 미쳤다 남명 당시 경상도를 크게 네 개의 界首官으로 구분할 때 진주목 管內의 전지역과 경주부 관내의 밀양·청도·창녕·靈山·현풍과 상주목

18) 앞에 든 이수건, 「南冥曺植과 南冥學派」 참조
19) 『明宗實錄』 卷19, 明宗 11년 11월 庚戌條

管內의 성주·陜川·高靈·草溪가 남명학파의 지역적 범위에 들어간다고 하겠다

15세기에 배출한 인물을 慶尙左·右道別로 비교해 보면 右道지역이 左道를 훨씬 능가하였다 成俔이 열거한 일국의 '鉅族'을 본관별로 살펴보면 좌도는 8姓에 불과한 데 비해 우도는 18姓이나 되었다 특히 진주지방에는 여말선초에 걸쳐 많은 인물이 배출되어 '嶺南人材 半在晋陽'이란 유행어가 나돌았다[20]

15세기 후반에 영남사림파의 宗匠인 김종직이 밀양에서 출생하여 함양과 선산의 수령을 역임하면서 지방 문풍을 진흥시켰고 성종의 총애를 받아 중앙의 淸要職을 한 데서 그의 문하에는 우도출신 사림이 모이게 되었다 그의 3大弟子라 할 수 있는 金宏弼(玄風)·鄭汝昌(咸陽)·金馹孫(淸道)을 비롯하여 朴漢柱·兪好仁·表沿沫·安遇·郭承華·盧瑊·姜渾·辛永禧 등이 모두 우도 내지 하도 출신이었던 것이며, 그들 중에는 무오·갑자사화에 희생된 자도 많았다

15세기의 2대 정치세력인 훈구파와 사림파 가운데 경상우도 출신이 많았다는 사실은 16세기 후반 남명학파의 형성에 직접·간접으로 많은 영향을 주었다 집권세력이나 재야사림을 막론하고 모두 사족출신이라는 데서 사족이 일찍 형성되고 강성했던 지역에서 사림이 많이 나올 수 있었기 때문이다 남명이 三嘉에서 김해를 거쳐 晩年에 진주목 管內 德山洞에 정착하여 講學論道한 데서 진주권은 마침내 남명학파의 연수가 되었다

퇴계와 남명 및 양인의 문도들로 구성된 퇴계·남명학파를 여러 측면에서 비교해 보면 양쪽은 서로 대조적인 면이 많다 두 학자의 생시에도 여러 인사들에 의한 비교 논평이 있었는가 하면, 후학들에 의한 논평도 많았다 퇴계와 남명은 乙巳士禍 이후에 사림의 領袖로 등장하여 동서분당 이전에 일생을 마쳤으니 기호학파의 영수인 율곡·우계와는 달리 黨色의 혐의를 받을 리 없었다 더구나 퇴계와 남명은 사림이 정권을 장악한 16세기 후반에 學德을 겸비한 신진사류의 영수로서 재조와 재야에서 학맥과 지연을 초월하여 朝野에 崇仰의 대상이 되었다 『明宗實錄』에는 퇴계와 남명에 관한 기사가 나올 때마다 史官의 논평이 細註로 기재되어 있는데 그러한 기사에는 양인의 학덕·出處 및 당시의 그에 대한 衆望에 대하여 찬사를 아끼지 않고 있다 물론 그러한 기사의 필자 중에는 退南의 문인들도 있었지만 당시 조정이나 사림사회에서는 退南을 태두처럼 숭앙하는 풍조가 있었기 때문이다

『明宗實錄』에 기재된 퇴계와 남명에 관한 史官의 논평은 매우 객관적으로 공정

20) 『晋陽誌』 卷4, 古蹟條 「國初, 本州人才盛, 三公六卿, 半是州人, 入翰林十二郎, 並出一時, 當時嶺南人才, 半在晋陽之語」, 同誌 叢談條 「太宗朝, 以河浩亭崙有大勳勞, 寵眷深重, 及公致仕而歸, 上親爲餞宴于濟川亭, 因賜中安里田稅一百結, 公構閣于鄕射堂後, 奉御筆, 以田稅爲鄕父老宴飮之資, 萬曆戊寅(선조 11년, 1578), 牧使李濟臣謂本州豪習, 由於鄕所, 燔火御筆閣, 奪還田稅」라 한 바와 같이 진주는 국초 河崙이래 토호세력이 강성하여 難治邑으로 소문나 있었다

하게 서술되었다고 본다 그 많은 논평 가운데 대표적인 몇 개를 적기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퇴계, ①「講明道學, 沉潛義理, 淵源濂洛, 爲世儒宗」(卷12, 明宗 6年 10月 甲申條)

②「爲人氣質英明, 學問高詣, 以小學律身, 終日端坐, 衣冠不解, 起居言語, 必以其時, 深探性理之源, 爲一時士林領袖, 不樂仕宦, 每有歸田之志, 上屢起之, 故勉仕于朝」(卷14, 明宗 8年 5月 乙亥條)

③「性明睿溫謙, 端詳和粹, 潛心道學, 體驗研究, 多所自得, 充養功深, 無復圭角, 辭受取與, 必揆諸義, 一毫不拘, 未嘗言人過, 亦不輕許人也, 其縷析精微, 闡明義理之功, 東方先儒之所未有也, 學者仰之如泰山北斗, 其飄然脫洒, 難進易退之節, 眞有鳳凰翔于千仞氣像, 一鄕士大夫觀感而化, 皆恥作非義, 而不屑貨利, 其德之入人者深矣」(卷32, 明宗 21年 2月 丁丑條)

④「天資純粹, 學識超詣, 自少有志於先賢爲己之學, 心息力踐, 情意篤行, 中年以後, 所見益功, 所得益高, 淵深浩博, 發越條幅, 雖謂之博約兩極可也, 文章道德, 爲一世所冠」(卷33, 明宗 21年 6月 甲戌條)

2) 남명, ①「爲人淸修苦節, 以禮法律身, 不以榮辱利達動其心, 操行卓異, 有名於世」(卷14, 明宗 8年 閏3月 甲子條)

②「隱居自守, 學問精博, 性高邁勇決, 不爲物欲所貴, 憤世嫉邪, 隱遯不仕, 識慮明睿, 氣節洒落, 聽其言論, 人皆竦動, 識之者以爲, 庶幾廉頑立懦之風云」(卷26, 明宗 15年 7月 丁卯條)

③「方正廉潔, 二世出塵, 秋霜志氣, 老而彌厲, 不能容人過惡, 憤世太過, 恒談譏諷, 盖隱居放言者也, 自言吾常多爲客氣所使也, 言甚峻激」(卷33, 明宗 21年 7月 戊申條)

④「居家凡喪祭冠婚, 皆倣朱文公家禮, 不混於流俗, 敎學者每勸讀近思錄·性理大全等書, 皆以體會自得爲急, 不屑屑於口讀之末, 常以近日初學之士, 好談高遠, 不知灑掃應對之節, 而先學啓蒙太極圖等書, 無益於心身, 而卒歸於爲名, 嘗以是貽書李滉, 欲禁此習, 且議論英發, 善闡發人意, 聞者莫不聳然, 卽進於學者極有益, 其意氣峻潔, 若將浼於流俗者, 而憂時感事之情, 未嘗小忘, 每語及朝廷闕失·生民困悴, 常慷慨太息, 或爲之泣下」(卷33, 明宗 21年 12月 戊子條)

그런데 양쪽은 출신지역, 가계와 학통, 성품과 爲學 태도, 현실대응자세 및 문인들의 행태와 세력 消長 등에 각기 특징이 있지만, 특히 지역성을 강하게 띠고 있다 두 사문을 다 같이 출입한 바 있던 鄭逑는 宣祖의 질문에 대해 두 학자의 기품과 爲學·교육자세에 걸쳐 간명하게 비교하였다[21] 퇴계학통을 계승하여 近畿

21) 退溪·南冥에 대한 鄭逑의 논평을 비롯하여 몇 개 例示하면 다음과 같다
鄭逑·李滉 「德器渾厚, 踐履篤實, 工夫純熟, 階級分明, 學者易以尋入」
曺植 「器局峻整, 才氣豪邁, 超然自得, 特立獨行, 學者難以爲要」(『退溪全書』 4, 言行錄

南人學派를 집성한 李瀷은 퇴계와 남명 또는 경상도의 上道와 下道를 대비하면서 "두 학자가 다 같이 영남지역인 소백산 밑과 두류산 동쪽에서 태어났지만, 상도는 仁을 숭상하고 하도는 義를 주로 하며, 퇴계의 학문은 바다처럼 넓음(海闊)에 비긴다면, 남명의 기질은 태산처럼 높음(山高)에 견줄 만한 것이라"하였다 李重煥도 그의 『擇里志』에서 경상좌·우도는 토질의 肥瘠과 物産의 豊嗇, 習俗의 侈儉 및 학문적·處世的 경향에까지 서로 대조적이어서 좌도는 관료지향성이 강해 仕宦이 많고, 우도는 財富를 선호한 나머지 豪富가 많다고 하였다 [22]

退溪는 "自古로 성현이 후세를 위해 '淑人心·崇正學'의 모범이 되는 것은 전적으로 '立言垂後'에 힘입어 기반이 마련된다 그렇지 않다면 孔孟程朱와 같은 성현도 후세에 무엇을 근거로 해서 그 단서를 찾고 그 학문을 稱述하겠는가"[23] 하면서 평생 학문에 침잠, 많은 시문과 저술을 남겨 동방의 주자란 호칭을 받았지만, 남명은 평소 '詩를 읊은 것을 玩物喪志'로 간주한다든지, '程朱後, 學者不必著述'이라는 태도를 견지한 결과 讀書箚記인 『學記類編』과 약간의 시문을 남겼을 뿐이다 [24] 처신·처세에 있어서 두 학자는 다 같이 辭受·出處를 엄격히 따지고 또 연속되었던 사화에 지친 나머지 '難進易退'의 입장을 취하려 했지만, 퇴계는 대소과거를 거쳐 고관요직을 두루 역임한 끝에 명종말·선조초에는 정계와 학계에 주도권을 장악한 신진사류의 영수로서 조야의 숭앙을 한 몸에 받고 있었다 따라서 당대를 주름잡던 학자와 관인들이 대개 그의 문하를 출입 한데서 마침내 퇴계학파는 그 기반이 경상좌도에 국한되지 않고 거의 전국을 포괄하게 되었다 또한 퇴계는 '未嘗言人過'하며 '接對之際, 未嘗言及時弊'[25]하는 등 일생을 謹拙·審愼하여 온건하게 처신하였으며 또 '尙仁'과 主理的 경향을 견지했기 때문에 퇴계학파는 동서 및 남북분당과 같은 당쟁에 있어서도 극단적인 대립은 피했던 것이다

이에 반해 남명은 중도에 과거를 포기했을 뿐만 아니라 간혹 '遺逸'로 천거되어 4품 이하의 閑職을 제수 받았으나 끝내 山林處士로 일생을 마쳤다 한때 承召上

卷8)

奇大升, 「觀李滉議論 則地位甚高, 祖述程朱, 故其所著述, 與程朱相近 曺植氣質磊落, 可謂壁立千仞 可以激頑立懦 而學問則有不循規模之病矣」(『宣祖實錄』 卷1, 宣祖卽位年 11月 丁卯條)

金宇顒 「其(曺植)致知之功, 似不若(李)滉之博大也, 然其躬行踐履之工甚篤, 精神氣魄有動悟人處, 故遊其門者 多有節行可任事之人」(『宣祖修正實錄』 卷7, 宣祖 6年 9月條)

崔 晛, 退溪 「氣象和平溫粹, 而踐履篤實, 故發之於言辭者, 雍容而的確, 精密而有味, 推源極本, 發揮程朱之餘意, 春和也, 顔子의 기상」

南冥 「氣象嚴毅豪邁, 而勇猛奮發, 故其發之爲文章也, 淸新奇古, 慷慨激烈, 如風檣陣馬, 利劒長戟, 眞可以動天地而泣鬼神矣, 秋殺也, 孟子의 기상」(『訒齋集』 卷8, 答鄭仁弘書)

22) 『星湖僿說』 卷1 東方人文條, 『擇里志』 八道總論 慶尙道條

23) 『退溪集』 卷12, 答柳仁仲論趙靜菴行狀別紙

24) 이수건 「嶺南學派와 南冥曺植」(『東方漢文學』 11집, 1995)

25) 『明宗實錄』 卷31 明宗 20年 4月 乙酉條 . 同書 卷32 明宗 21年 2月 丁丑條

京하거나 잠시 기호지방을 여행한 적은 있었으나 그의 足跡은 三嘉·金海·晋州·山淸 등지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문도들도 자연히 경상우도에 편재되어 있었다 그는 대쪽같은 성품으로 壁立直行하는 처신을 한 데다가 '不輕許人'·'不妄交'한 나머지 교우관계도 넓지 않았다 그는 '敬義'와 反躬實踐을 行身·爲學之道로 삼았던 것이며 知行과 言動이 일치하지 않은 당시의 학자들을 '盜名·欺世'하는 자라 하여 매도하였는가 하면, 때로는 傍若無人的인 호탕한 기상도 있었다 남명의 그러한 성품과 기상 및 학문적 태도는 琴蘭秀의 日記에 잘 묘사되어 있다[26]

남명은 일생을 초야에서 보냈지만 결코 현실을 망각한 은둔자는 아니었다 그는 수차의 상소에서 戚族政治의 폐해와 胥吏들의 횡포를 지적하고 획기적인 변통과 잘못된 世道를 만회해야 한다고 시종 솔직하고 과격한 언사로써 개진하였다 그와 같은 尙義·主氣的인 현실대응 자세는 결과적으로 그의 문인들로 하여금 壬辰倭亂이 발발했을 때는 모두 倡義·討賊의 대열에 나서게 하였고, 不義를 보고 참지 못하는 현실에 대한 저돌적인 자세 때문에 마침내 晋州의 侄婦 사건에 연루되었던 것이며, 그의 수제자격인 崔永慶과 鄭仁弘이 각기 己丑獄事(1589)와 仁祖反正에서 獄死 또는 처형되는 결과를 가져왔던 것이다

Ⅳ. 退南의 역사적 기능과 그 限界

퇴계는 당대 또는 후대에 서인과 북인쪽 인사들로부터 程朱에 의존하는 '依樣性'과 難進易退의 소극성 및 '退嬰性'을 지적, 비판받았지만, 그의 평생사업을 오늘의 시각에서 살펴볼 때 그는 당대 제일의 성리학자로서 신진사림을 영도하면서 사림정치의 정착을 위해 혼신의 힘을 쏟았다고 볼 수 있다 퇴계의 靜菴·晦齋 行狀찬술과 향촌규약의 제정과 실시 및 書院보급 운동에서 특히 그러한 면을 살필 수 있다 道統문제는 벌써 기묘사화를 전후한 시기의 사림에 의해 제기되어 정통 성리학의 계보가 '포은—야은—점필재—한훤당·일두'로 이어졌고 仁宗朝에 정암을 한훤당에 연결시킨데 이어 明宗末 퇴계에 의해 회재가 추숭되면서 東方四賢의 陞廡운동과 함께 도통이 확정되었다 여기에서 우리는 兩賢의 行狀을 찬술할 당시 정계와 학계에 있어서 퇴계의 위치를 재음미할 필요가 있다 퇴계는 훈척세력의 퇴조와 사림정치의 성립기에 임하여 첫째, 기묘·을사사화 때 피해 사림의 전철을 다시는 되풀이해서는 안된다는 주도면밀한 자세로, 몰락해 가는 훈구세력에 대신할 사림정치의 확립을 위해 온건, 점진적인 대응자세를 견지하였다 둘째, 기묘사

26) 『惺齋日記』 辛酉(明宗 16년, 1561) 4月 18日條

림에 의해 이미 계보화된 도통을 정암과 회재로 잇기 위해 兩賢의 行狀을 찬술함으로써 동방사현의 위치를 확고부동하게 함과 동시에 훈구세력에 대한 사림파의 정통성을 강조하였다[27] 그것은 바로 앞으로 정계와 학계를 주도할 사림파의 도통을 확립함으로써 君臣·조야를 막론하고 이의가 없게 한 것이었다 셋째, 사림의 일차적 세력기반인 鄕村社會를 사림 주도하에 두는 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즉 성리학적 향촌질서와 사회·경제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각종 향촌規約을 제정, 실시하고, 그 문인들과 함께 서당·서원을 보급시켜 나갔던 것이다[28]

상술한 바와 같이 퇴계는 당대 또는 후대인으로부터 소극적·퇴영적 처신·처세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지만, 그의 기본 입장은 종래 4대사화 때마다 선량한 士林이 당한 일방적인 피해를 다시는 되풀이해서는 안된다는 것과 사림정치의 도래는 기정사실인 만큼 사림정치가 설 수 있는 토대를 확고히 다져야 한다는 보다 차원 높은 經綸을 발휘했다고 볼 수 있다

南冥學은 경상우도라는 역사적 전통과 지리적 환경 및 선배학자들의 영향하에서 형성되었다 金宏弼·鄭汝昌·趙之瑞를 비롯하여 金大有·郭珣·申季誠 등과 吳健·崔永慶·鄭仁弘·郭再祐 등 남명의 師友門人관계를 살펴보면 기질·사상·학문·처세 및 文體에 이르기까지 공통의 특징을 갖고 있었다 그러한 특징에는 '老莊'과 '陸王學'的 일면을 지니고 있었다 또한 남명학은 현실적·정치적 기능이 약화되고 반대로 思辨的인 번쇄한 理氣論과 禮學 중심으로 흘러가는 학풍에 대하여 비판과 반성을 촉구한 데서 일정한 시대적 기능을 수행했다고 볼 수 있다 퇴계를 추종하던 신진사류가 명종·선조교체기에 정계와 학계를 주도하면서 시국을 비교적 낙관하고 있었던 것에 비해 남명은 그러한 현실안주적인 태도와 실천이 수반되지 않은 학풍에 대하여 利祿만 탐내고 盜名·欺世하는 행위라 하여 통렬히

---

27) 이수건, 「晦齋李彦迪家門의 社會經濟的 基盤」(『民族文化論叢』 12, 1991)

28) 퇴계는 宣祖卽位를 전후하여 李浚慶을 중심한 집권대신들과는 절친한 사이였는데 다가 新進士林의 영수로서 자신은 비록 難進易退의 태도를 견지했지만, 朴淳 奇大升 등을 자기 대신으로 내세워 훈척정치의 청산과 사림정치의 확립을 위해 재조·재야에서 노력하였다 그러한 과정에 훈척세력으로부터 小己卯'로 지목 받기도 하였다 퇴계는 자기를 떠받들고 있는 신진사림에게 종전의 己卯 乙巳士禍와 같은 사화의 재발을 철저히 경계하면서 朴淳과 奇大升 등에게 조심하라고 당부하기도 하였다 관련자료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 答朴淳書「近世士林之禍, 專因虛著而作, 猶聞俘囚之徒, 動以小己卯目之, 此乃載禍相餉之言 滉不幸而當虛著之局, 及至於敗, 未知諸公, 其得晏然而已乎, 愚意嘗謂己卯領袖人, 學道未成, 而暴得大名, 處以經術自任, 聖主好其名, 而厚其責, 此已是虛著取敗之道, 又多有新進喜事之人, 紛紜鼓作, 以促其敗, 勢使讒者, 得售其術」(『退溪集』 卷9, 明宗 21年, 1566)

② 答奇大升書, 「嘗怪吾東方之士, 稍有志慕道義者, 多罹於世患, 是雖由地褊人嫉之故, 亦其所自爲者, 有未盡而然也, 其所謂未盡者無他, 學未至而自處太高, 不度時而勇於經世 此其取敗之道, 而負大名當大事者之切戒也 故爲公今日之道, 勿太高於自處 勿處勇於經世, 凡百勿太過於自主張 」(『退溪集』 卷16 明宗 14年, 1559)

비판하였다

경상좌도의 학문적인 師友淵源관계는 退溪 이전에는 지역·씨족별로 분립되어 있었으나 퇴계 이후부터는 이곳의 학문세계가 '退溪學派'라는 하나의 울타리 안에 통일되어 갔다 퇴계는 이곳을 중심으로 정통 성리학을 영남의 후학들에게 전수시켜 主理學派를 확립시켜 놓았을 뿐만 아니라 書院을 비롯한 敎學體系를 정비하고 鄕規·洞約을 제정·실시하여 주자학적 향촌지배질서와 윤리를 확립시킴으로써 그가 제시했던 교학체계와 향촌질서는 그의 문인들에 의해 적극 계승되어 退溪門徒가 가는 곳마다 書堂·書院·祠廟가 새로 개설되고 그들이 거주하는 향촌에는 으레 鄕約·동약·族契 등이 실시되어 갔던 것이다 대체로 左道의 퇴계학파는 16세기 후반 사림이 중앙정계를 장악할 때 가장 강력한 정치세력이 되었고 壬亂을 전후한 시기에는 退溪門下를 출입한 인사들이 정계·학계의 주도권을 장악하다시피 하였다 선조 8년(1575) 사림파의 동서분당이 결과적으로 畿湖·嶺南이란 양 학파의 반목과 대립을 가져왔지만, 퇴계만은 양 학파와 기호·영남 출신에 관계없이 君臨하는 위치에 있었다

退溪와 南冥 및 양현을 중심으로 한 양 학파는 조선왕조 士林政治와 유학사에 있어서 정치·사회적으로나 학문적·사상적으로나 크게 기여한 바 있다 그들은 사림정치의 정착을 위해 포석을 놓고 그 위에 한국성리학이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함과 동시에 난숙한 유교문화를 꽃피우게 하는데 주도적인 기능을 수행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퇴계의 文集과 저술은 임진왜란 후 日本으로 반출되어 에도시대 유학사상의 주류인 기몬학파 및 구마모토학파에게 깊은 영향을 끼치기도 하였다

17세기초 南人과 北人간의 당쟁이 치열해지자 양 학파의 대립은 더욱 첨예하였는데, 당시 史官은 여기에 대하여 퇴계·남명의 학문적 태도와 양 학파의 대립상을 다음과 같이 논평하였다 [29]

영남은 人才의 府庫이며 士論의 기반이다 신라로부터 고려에 이르고 고려로부터 本朝(조선왕조)에 이르기까지 名儒·碩士가 빈번하게 배출되어 국가의 元氣를 부지한 자가 끊일 사이 없었다 지난 明宗때 退溪·南冥 양 학자가 한 도에서 나란히 탄생하여 道學을 倡明하고 義理를 開示하여 인심을 맑게 하고 世敎부지를 책무로 한 결과 선비로서 훈도 감화되어 보고 느끼고 흥기한 자들이 많았다 비록 쇠란한 때(임진왜란)를 당해서도 사람으로서 자식은 孝에 죽고 신하된 자는 忠에 죽어 윤리와 문명이 유지된 것은 모두 두 선생의 공로라 하겠다 오직 두 학자의 出處가 같지 않아 혹은 行道救時로 마음먹고(퇴계), 혹은 隱居求志를 즐거움으로

29) 『宣祖實錄』 卷189, 宣祖 38년 7월 丙申條

살았으나(남명) 그 귀추는 모두 도의에 어긋남이 없었다 그런데 양 학자의 문도들은 두 선생 학문의 深淺을 잘 알지 못하고 한갓 그 자취만을 갖고 數世에 걸쳐 서로 비방하고 있으니 뜻 있는 선비들이 개탄한 바 오래되었다

그런데 退南의 사상과 학문적 저술과 經世學 및 문학작품을 살펴볼 때 당시의 일반사림과 같이 慕華사상에 매몰되어 자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관심은 희박한 반면, 言必稱堯舜三代와 孔孟程朱라 하면서 中國중심의 세계관에서 자국을 '小中華'로 자처하여 학문과 문학의 세계에도 그것의 모방과 반추에 시종했던 것이다 퇴계와 남명은 왜 "舜은 어떤 사람이며 나는 어떤 사람인가"라는 顔子의 爲學자세를 갖지 못하고, 전자는 程朱學에 너무 의존하면서 陸王學이 당시 사림사회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단호히 배격했던 것이며, 후자는 知行合一과 실천을 강조하면서도 '程朱後, 不必著述'이란 태도를 견지하였는가?

왜 그들은 중국의 經史와 詩文에 대해서는 博覽强記하면서도 자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서는 그렇게도 관심을 적게 가졌을까?

왜 그들은 『朱書節要』·『宋季元明理學通錄』·「聖學十圖」와 『學記類編』과 같은 저술에 대해서는 해박한 지식과 유창한 필치로서 혼신의 정력을 쏟았는데 반해 그러한 학문적 저술에서 자국의 역사적 전통과 문화적 유산에 대해서는 그렇게도 철저하게 배제하였을까?

이상적인 유교정치와 賢哲君主論을 내세우기 위해서는 중국의 요순삼대와 공맹정주를 引證해야 하겠지만 거기에 앞서 먼저 자국의 처지와 현실, 자신이 일상 밟고 사는 국토, 늘 보고 느낄 수 있는 산천, 또한 조정에서, 관청에서, 향촌에서 현실의 부조리와 민생의 고통, 농촌의 피폐상을 목격하면서도 왜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제시나 대안 개진은 그렇게도 적었는가?

실학자의 저술에는 道와 器, 綱과 目이 並擧되고 자국의 문헌과 先賢들의 所說을 적극 引證한데 반해 退溪와 南冥의 疏箚에는 器보다는 道, 目보다는 綱을 제시함과 동시에 문헌적 전거도 시종 중국 쪽 일변도였으므로 그러한 의식이 후대 학자들로 하여금 이른바 편협한 斥邪衛正편에 서게 했던 것이다

퇴계와 남명의 사상과 학문자세 및 현실대응은 조선후기 경상좌·우도 사림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다 퇴계의 出處에 있어 難進易退的 出仕觀과 지나친 謹拙·審愼자세는 뒷날 退溪學派로 하여금 계속 재야세력으로 밀리게 되는 退嬰性과 消極性을 견지하여 끝내 在地士族으로 만족하게 하는 전통을 남겼다고 볼 수 있다

남명학파의 敬義사상과 務實力行 및 과단성 있는 決行性은 당시 진부한 정계와 번쇄한 理氣·禮說의 학계에 청량제가 되었고 그러한 특징은 壬亂의 의병활동에서 유감없이 발휘되었다 그런데 남명에서 정인홍으로 이어진 남명학파 및 정인홍의 학문적·정치적 한계를 거론할 때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우선 지적될 것 같다

첫째, 남명의 경우, 退高의 四七論辨과 같은 순수한 학문적 논쟁을 盜名·欺世행위로 간주한다든지, 진주의 淫婦사건 등으로 인한 문인들의 '毁家·黜鄕'행위 및 李楨과의 절교 등이 거론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정인홍의 경우 出仕후에는 激濁揚淸的인 言行으로 당쟁을 격화시켰는가 하면 北人집권때 南人·西人에 대한 철저한 배격과 北人專用자세, 임해·영창·인목대비 문제에 대한 討逆일변도로 光海정권을 파탄으로 몰고 간 책임, 특히 士林政治하에서 南·西人의 정신적 지주인 '晦退'와 '牛栗'을 싸잡아 공격하는 데에서 大北의 고립을 자초하게 된 책임 등은 면하기 어려울 것 같다 [30]

이상과 같이 퇴계의 지식과 남명의 행동, 퇴계의 지나친 조심성과 남명의 지나친 과단성이 서로 대화·토론하고 융합해서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했더라면 멋진 학문풍토가 조성되었을 것이라고 본다 한편 남명의 사상 가운데 핵심을 차지하는 '敬義'사상[31]에 대해 최근까지 긍정적인 면만 천착할 것이 아니라 그것의 한계에 대한 연구가 요청된다 특히 '義'의 문제는 '春秋大意'와 義理·忠逆문제와 함께 당쟁과 결부하여 정치·사상계의 경직화와 대화·협상·타협·이해조정과 같은 유연성을 갖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辭受와 出處, 和斥(講和와 斥和문제)·忠逆의 이분법적 흑백논리와 光海정권의 討逆일변도의 과오를 범하는데 일정한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된다

퇴계와 남명은 16세기 중반 재조·재야에서 새로운 집권세력으로 성장한 士林의 영수로서 당시 조야가 안고 있는 제도적 모순과 현실의 부조리, 잘못한 儀禮와 관행 및 주자학의 한계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는 것이 매우 안타깝다

오늘 우리들이 퇴계와 남명의 사상적 특성을 고찰, 규명함에 있어 겸허한 자세로 냉철한 자기반성과 비판이 필요한 때라고 본다 과거의 체제와 결부된 유교문화 내지 영남학파의 전통은 이미 소멸된 것이지만, 우리의 생활 속에 남아 있는 전근대 先賢들의 사상과 의식에 대해서는 냉정한 성찰을 통하여 부정적인 것은 과감히 청산하고 긍정적인 것은 좋은 전통으로 살려야 할 것이다 이 학술회의에서 퇴계와 남명의 철학·문학·교육 및 현실인식 등 학문과 사상적 특성이 다방면에 걸쳐 우리 고장의 지성들에 의한 知的 결집에 의한 方向 모색으로 뜻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충심으로 기원한다

30) 이수건, 「南冥學派 義兵活動의 歷史的 意義」(『南冥學硏究』 2輯, 1992)
31) 李相弼, 「南冥學派의 形成과 展開」(博士學位論文, 고려대대학원, 1998)에서 南冥의 敬義'사상에 관한 정치한 연구가 있다